

전주시 '좋은 이웃들' 봉사대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소외된 이웃 발굴 지원 ·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전주시 봉장과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원, 미용사협회 등 1,720명으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봉사대가 올 한해 다양한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자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정석)는 13일 아리랑하우스에서 우중상 복지환경국장과 전우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단장을 비롯한 '좋은 이웃들' 봉사대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좋은 이웃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지킴이'를 모토로 민·관 협력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소외된 이웃들 찾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주요활동을 담은 홍보동영상 시청과 각 단체 소속 봉사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헌신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선 우수 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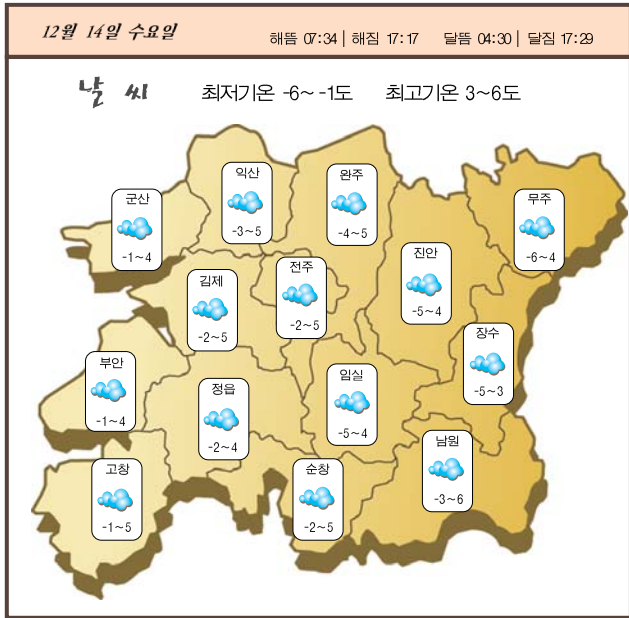
우중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좋은 이웃들 사업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돕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을 채워주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좋은 이웃들 봉사대에는 봉장과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원, 미용사협회 등 1,720명의 봉사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310여건의 복지소의 계층을 발굴해 식·생활, 주거, 의료 등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좋은 이웃들'의 복지소외계층 이웃 발굴에 동참을 희망하거나,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발견할 경우에는 전화(063-241-88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힘찬 발걸음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쟁력 갖추기 위한 비전·목표·추진 전략들 제시

전주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밑그림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13일 시장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용역기관인 (사)한국관광레저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0년 '전주시 관광발전진흥계획 수립 연구'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이 국내외 관광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한옥마을 2단계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 전략들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그린 전주관광의 미래상을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 전주로 정하고 한문회의 거점 글로벌 관광도시, 관광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화, 관광객과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주를 한옥마을 권역, 덕진 권역, 모악산천 권역, 혁신도시 권역, 도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으로 나눴다.

특히 권역별 관광자원 및 잠재력, 연계가능한 사업, 주요과제 등으로 분석해 △한옥마을을 글로벌 브랜드 제고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 △시민 친화형 생활관광 기반육성 △글로벌 관광서비스 환경조성 △연계형 관광사업 확대 등 5대 발전전략을 수립, 발전전략별 추진과제를 공간개발과 관광진흥사업으로 나눠 65개 사업을



전주시는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인 (사)한국관광레저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전주 정방태워 건립, △미식 테이블웨어와 클러스터 산업 조성, △미래농업 테마파크 조성, △마을관광 육성, △전주시 미식세계대회 개최 등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으며 민선6

기 들어 투리 플래닛 선정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최고여행지 3위', 국제슬로시티 전주 재지정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타 지역이 가지지 못한 한스타일, 왕도문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패리, 로마 등을 뛰어넘는 위대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정책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용역결과물과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관광정책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실행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외국어 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식

"FIFA U-20월드컵 성공개최, 2017년 글로벌관광활성화, 전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해설 등을 지원해줄 외국어 관광해설사 33명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관광지원사업과 글로벌관광지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외국어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영어 17명, 일본어 9명, 중국어 7명 등 총 33명에 대해 32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외국어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관광지원화 사업과 글로벌관광지원화 목적으로 내년 U-20 FIFA월드컵 개최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10월 외국어 전공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교직원 34명을 모집, 11월 15일부터 5주간 매주 2회 전주의 역사, 문화, 관광해설 기법과 사례, 언어별 강의 등 이론교육과 한옥마을입대와 전통생당, 풍납문 등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들려줄 문화관광해설을 교육했다.

/김영재기자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경쟁률 소폭 상승'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시) 일반고의 신입생 원시접수 결과 1만387명 모집 정원에 1만678명이 지원해 평균 1.0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16일 선발고사가 27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선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불합격처리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역별 모집정원과 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6천9백13명 모집 정원에 7,138명이 지원해 1.030:1로 나타났다.

또 군산은 1,674명 모집에 1,709명이 지원, 1.119:1을, 익산은 1천8백 명 모집에 1,831명이 지원, 1.019: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인 3개시 일반고 학급당 정원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난해 36개교 1만1,681

명의 모집정원보다 1,294명이 감소한 1만387명으로 평준화지역 모집정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경쟁률에 관하여 전주지역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원인은 전기고 특성화고에 지원율이 낮아지고 후기고 전주지역 일반고에 지원자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중3학년이 전년도에 비해 2,600여명이 감소하였고 201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모집정원 또한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조정하여 감축한 바 있다. 2018학년도 고입에서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입전형은 시행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